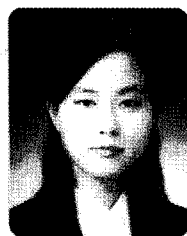


2011산후안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다녀와서



글 | 최 인 경
한국도서관협회 회원교류팀원
ikchoi@kl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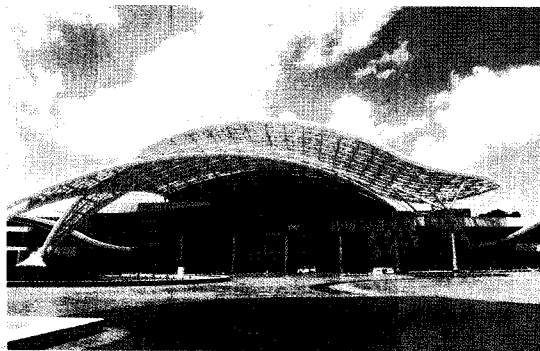
2011산후안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컨벤션센터에서 2011년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도서관, 그 이상의 도서관(Libraries beyond libraries : Integration, Innovation and Information for all)”을 주제로 150여 개국의 2,200여명의 도서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 남태

우 회장을 단장으로 각급 도서관장 및 실무자 총 40여명이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한국어 참가자 및 한국에 관심 있는 참가자 모임

한국어 참가자 및 한국에 관심 있는 참가자 모임은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공식 프로그램의 일부로 2009년 밀라노WLIC에서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 주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2010년 예테보리WLIC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와 단독으로 주관했다.

이번 모임은 8월 13일 오후 6시부터 푸에르토리코컨벤션센터 208b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우진영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과 엘렌 티세 IFLA 회장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하였으며,



▲ 푸에르토리코컨벤션센터



▲ 등록데스크



▲ 한국어 참가자 모임

▲ 한국인의 밤 행사

박재섭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관장 등이 WLIC에 대한 소개와 대회 참관에 대한 안내, 한국인 프로그램 발표자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르토리코대학 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관현악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한국인의 밤

8월 13일 오후 8시 30분부터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인 참가자들의 모임인 “한국인의 밤”행사가 웨라톤컨벤션호텔 2층 산펠리페홀에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대회참가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인사말과 전성기 고려대학교도서관 관장의 건배 제의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전시회와 포스터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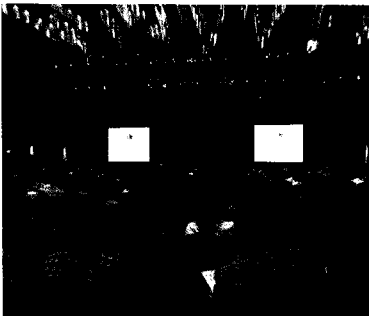
전시회는 8월 14일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운영되었다. 도서관 및 도서관정보화 관련 업체인 엘스비어사, OCLC사 등과 주요단체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 80여개 기관에서 도서관 신기술 및 홍보 관련 부스를 설치하여 각국의 새로운 도서관 관련 기술들을 선보였으며, 전시 개막과 기념파티가 현장에서 함께 열렸다. 이번 대회는 예년에 비해 적은 규모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어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다. 포스터세션에는 세계 각국에서 165편이 응모되어 도서관 현황 및 성과, 향후 활용방안 등을 소개했다.

개회식

개회식은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푸에르토리코컨벤션센터 그랜드살롱A홀에서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엘렌 티세 IFLA 회장의 인사말과 푸에르토리코 관계자들의 축하인사, 그리고 페르난도 피코 푸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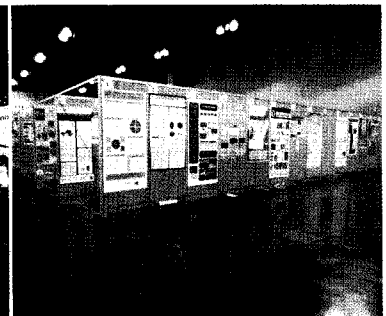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회와 IFLA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8월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첫 참가자 모임



▲ 개회식



▲ 전시회장을 찾은 참가자들



▲ 포스터세션



▲ 활용능력과 독서분과, 국가도서관분과 공동세션

▲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회의

(Newcomers Session)’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IFLA의 목적과 구성, 2011년도 대회 소개, 대회 개최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48개 주제분과별 각 2회씩의 세션과 각 세션별 5-6개의 연구논문 및 사례발표가 있었다.

8월 15일 208호에서 열린 활용능력과 독서분과, 국가도서관분과 공동세션에서는 “문자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UN의 10년 노력을 넘어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제로 13편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개최되었으며, 발표자 중 이번 대회 우리나라 유일한 발표자인 이숙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개발과 독서 진흥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빌게이트도서관재단 ‘2011 배움의 기회제공상’ 시상식도 8월 16일 오후 4시 104호에서 개최되었다. 이 상은 정보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도서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농촌 지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에 혁신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인정받은 아리드랜드정보네트워크(Arid Lands Information Network, ALIN)가 수상하였다.

IFLA 국가도서관분과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회의(NILP SIG)’가 8월 18일 오후 1시 45분 전시홀A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클라우드아 룩

스 전 IFLA 회장의 도서관정보정책과 정부의 역할, 한국의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의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역할 등 특별강연과 피터 로 전 IFLA 사무총장, 니엔 렉 초 싱가포르국립도서관 관장, 바바라 구빈 미국 잭슨빌공공도서관 관장의 NILP SIG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 그리고 재스민 케머런 호주국립도서관 부관장의 향후 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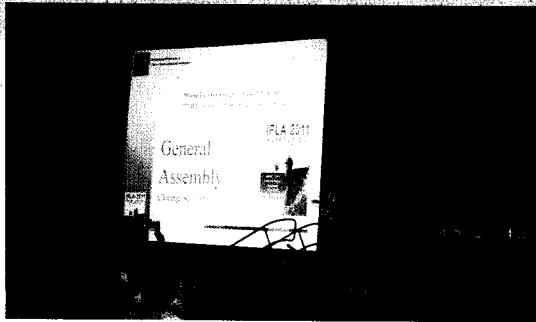
문화의 밤 행사는 8월 16일 오후 7시 전시홀C에서 열렸다. 날씨 관계로 당초 예정된 야외 광장에서 푸에르토리코컨벤션센터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푸에르토리코 민속음악과 민속춤, 가수들의 공연이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은 다과와 음료 등을 즐기고 댄스파티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총회

8월 17일 오후 4시에는 그랜드살롱A에서 IFLA 2011총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회장 인사말과 2011-2012년 주요 사업 및 예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등이 있었고, 차차기 회장으로 핀란드의 시니카 시필라 씨가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다.

폐회식

이번 대회의 폐회식은 8월 18일 오후 4시 그랜드



▲ 폐회식



▲ 푸에르토리코국립도서관에 방문

살롱A에서 열렸다. 폐회식에서는 대회 각종 부문에 대한 시상과 2011산후안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 위원장의 환송인사, 2012년 차기대회 개최지인 핀란드 헬싱키대회 조직위원장의 초대인사, 2013년 대회 개최지 발표 및 조직위원장의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잉그리드 패런트 차기 회장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폐회되었다. 2013년 대회는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도서관 견학

올해 IFLA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견학을 위해 모두 8월 19일 푸에르토리코컨벤션센터 앞에서 집결하여 버스를 이용하여 약 30여개의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법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각각의 도서관을 방문했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는 푸에르토리코국립도서관 견학을 직접 주관했다.

푸에르토리코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Puerto Rico)은 2003년 8월 17일, 법률에 의해 푸에르토리코문화원(Institute of Puerto Rican Culture, IPCR)의 도서관이 푸에르토리코국립도서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푸에르토리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전 학문분야의 연구센터로 발전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국립도서관은 푸에르토리코인이 국내외적으로 저술 및 출판한 푸에르토리코 문헌을 수집, 보존·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가, 학습 및 연구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문헌과 푸에르토리코를 홍보하는 출판물을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푸에르토

리코국립도서관 내에 카사콘차멜렌데스도서관(Casa Concha Melendez Library)이 연결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다른 분야의 전문화된 도서관으로서 수필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카사 콘차 멜렌데스의 도서, 친필원고, 사진 등을 소장하고 있다.

IFLA 공식 방문도서관 중 우리가 방문한 도서관은 푸에르토리코대학교 리오 피에드라 캠퍼스 도서관이다. 푸에르토리코대학교(University of Puerto Rico)는 국립대학으로 11개의 캠퍼스, 약 64,500여명 학생과 5,300여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캠퍼스의 단과대학별로 각각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리오 피에드라스 캠퍼스는 푸에르토리코대학교의 본 캠퍼스로 산후안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1개의 캠퍼스 중 가장 넓다. 푸에르토리코대학교 리오 피에드라스 캠퍼스 도서관은 18개의 전문·일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4백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장서 접근은 온라인 목록시스템으로 검색 가능하다. 주요 장서로는 카리브해 및 라틴아메리카 연구도서관과 푸에르토리코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한국대표단은 미국 뉴욕공공도서관과 미국국회도서관을 견학하였다.

뉴욕공공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은 1895년에 레녹스(Lenox)와 애스터(Astor)가 기증한 장서들과 털덴 재단(Tilden Foundation)의 신탁금 200만 달러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1901년에



▲ 푸에르토리코 대학도서관 방문



▲ 뉴욕공공도서관 방문

는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가 이동도서관 설치 기금으로 520만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미국 최대의 도서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뉴욕시 42번가 5번로에 있는 도서관 중앙건물은 1911년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으며, 이 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솀버그(Shomburg) 흑인문화연구센터, 행위예술도서관, 과학·산업·비즈니스도서관 등 4개의 연구센터와 브롱크스, 스테이튼아일랜드, 맨해튼에 있는 87곳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총 5,200만권 이상의 도서와 비디오, 악보, CD, 그림, 지도, 점자책, 필름, 마이크로필름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1,600만명이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한다. 도서관에는 전체 180명 직원과 35명의 사서가 근무하고 있으며, 87개 분관까지 합해 1년 총 3,200억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국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은 1800년 의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옮겼을 때, 새 의사당 내에 설치하여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후원으로 기틀을 잡았다. 1865~1897년에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협회가 국제적 도서관화사업으로 수집한 각국의 학술자료를 입수하고, 납본을 통해 오늘과 같은 대규모의 장서를 갖추게 되었다. 1899~1939년에 목록법·분류법 등의 도서정리 기술에 관해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인쇄카드와 종합목록 등을 개발하였다. 도서관의 소장 장서는 약 1억5천만점에 이르고 하루 20,000점의 자료가 추가로 수집되며, 그 중

10,000점의 자료를 등록하여 소장한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지도 자료와 3,300만 편의 논문을 소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에는 아시아관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고, 그 중 한국 관련자료는 영어로 된 한국 관련자료가 10,000점, 한국고지도 500여점, 한국관련 1600~1700년대 귀중자료가 3,500여점 등 210,000여점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마치며

지구를 반바퀴 정도 돌아 찾아간 푸에르토리코는 국토 면적이 13,790km²로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를 합한 크기보다도 약간 작다. 하지만 남아프리카에 오지에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접하게 해준 사서부터 대한민국 광주에 손녀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준 캐나다 대학도서관의 사서, 대회 기간 중 새롭게 마련된 도서관 방문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푸에르토리코의 사서 자원봉사자 까지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인종도, 나라도 구에 받지 않는 오로지 도서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이 이번 대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각각의 노력과 열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느꼈던 이 열정을 고스란히 가져와 앞으로 나아가길 원동력이 되고, 더 크게는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